



미국 계란소비촉진 강화

-채란계 생산농가 소비촉진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

계란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1 \$ (약 700원)을 투자하면 채란 양계업계에 2.4 \$ (약 1,68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American Egg Board가 밝혔다.

동회의 연구발표에 따라 미국의 채란 양계업자들은 현재 계란 한 상자(360개)당 5센트(약35원)인 계란 Checkoff을 7.5센트(약4,935원)로 인상함과 아울러 최고 10센트(약70원)가 될때까지는 AEB 이사회의 의결 만으로 연간 0.75센트(약53원)씩 올릴수 있도록 하고 AEB의 이사수(數)를 현재의 18명에서 소비자대표 2명을 추가한 20명으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가을에 우편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청문회를 열고 있는 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는 1979년 2월에 개정안을 작성 LSDA에 신청한 바 있는 것으로 1980년 6월에 의회와 행정부의 인가를 얻었으며 지난해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극심한 불황에 처한 양계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년으로 미루게 된 것이다.

그동안 AEB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계란생산농민은 라디오나 TV 등 매스미디어

를 통한 계란의 영양가치 및 경제성홍보와 잡지 및 신문에 계란요리법을 게재하는 빈도를 늘려주길 원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을 포함한 소매점포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수 있는 계란 및 계란제품 진열방법의 보급은 물론 콜레스테롤에 대한 임상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려 계란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내 일본소유 Elevator 증가추세

-최근 3년간 5 배로 증가-

日本은 이제 자국민의 수요만을 위해 곡물을 구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곡물을 사들여 세계 도처에 팔고 있다. 지난해 미시사는 11억 \$ (약7,700억원)에 달하는 미곡물을 푼투칼에 수출했다. 아직은 카길, 콘텐탈등 메이저들이 세계곡물교역을 지배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본상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증거로서 미국내에 일본인 소유 곡물저장 및 수송시설의 규모가 지난 3년동안에 5 배로 늘어 갔으며 일본은 이제 세계곡물교역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항곰팡이제 간담회 개최

- 제일화학, 마이코톡신과 그대책 연구 -



제일화학(대표 서정범)은 사료곡물에 작용해 영양소의 소모와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곡물 및 사료질을 변화시키는 곰팡이에 대한 간담회를 지난 4월 15일 오후 서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사료업계, 학계,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위생연구소 박종명연구관의 아프라톡신 분석 방법에 대해, Bob Bland박사의 아프라톡신 및 그 대책(성균관대학교 신형태박사의 요약 및 보충설명)에 집중연구가 있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Bland박사는 곰팡이의 일반적 특성과 곰팡이로 부터 생성되는 독소(Toxin)에 대한 설명에서 50kg의 옥수수중 50알의 옥수수가 독성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도 심하면 가축을 치사시킬 수도 있다고 전하고 마이코톡신은 독성이 강해 미국의 경우에는 20ppb만 함유하고 있어도 판매금지를 시킨다고 전했다.

특히 옥수수 상태에서는 아포를 형성을 하고있던 곰팡이가 분쇄되어 사료화된 옥수수에 활성화해서 독소를 발한다고 전하며 사료

회사를 떠난 후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고 항곰팡이제제를 통해 활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항곰팡이제로 그동안의 암모니아제제에서 Monomeric 상태에서 안정성이 높아 경제성이 높은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계통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축협 3군 조리강습회개최

- 육류소비개선 식생활개선운동의 일환 -

축협중앙회(회장 김일로)는 지난 4월 8일부터 육·해·공 3군의 각 부대별로 군급양향상을 위한 조리 강습회를 실시했다.

각 지역별 급양담당 선임하사관 1천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강습회는 한국식생활연구회의 협조로 5월 28일까지 계속되는데 이는 육류소비개선을 통한 식생활개선운동의 일환이다.



한편, 현지 실기교육및 강의로 진행되는 강습및 시식품목은 돼지고기 4종, 닭고기 1종, 계란 3종등 8종으로 군 단체급식에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케되어 군 체력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육류소비구조 개선으로 축산진흥기반을 튼튼히 하고 군·민협조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 Shaver농장 한국 총대리점에 고창양계

세계 유수의 백색산란계 셰이버스타크로스 288과 갈색 스타크로스 585부로일러 스타브로로 알려진 캐나다의 셰이버 농장의 부사장 LIFFORD. L. LUCE (해외담당 부사장) 씨와 고창양계의 신흥종사장은 한국내 셰이버종계 (GPS 및 P. S)의 독점 공급계약서에 서명하였다.



△ 공급계약서에 서명하는 LUCE 부사장

지난 4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이상윤 본회 회장 입회하에 양측은 서명을 마친 후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본회 이상윤 회장은 LUCE 부사장에게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우수한 종계의 공급과 새로운 사양관리 기술을 보급하여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고창양계의 신흥종사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일반사양가들에 대한 셰이버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모든 양계인의 셰이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LUCE 부사장은 앞으로의 세계 양계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근 파키스탄에서 소와 산양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정부는 1주에 2일은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쇠고기가 들어간 음식도 판매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소 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닭고기와 계란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고 파키스탄의 예를 소개한 다음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하냐고 이상윤 회장에 제의 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셰이버는 한국카아길에서 국내시장에 공급하여 왔다.

우유위생관리 「세미나」 개최

- 우유변질 방지대책 토론 -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윤래병)는 지난 4월 13일 무역회관에서 하절기에 대비한 「우유및 유제품의 위생관리세미나」를 개최했다.

각 유업체의 위생관리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범래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의 「우유변질 방지대책」 권창환 보사부 식품위생계장의 「하절기 식품위생대책」, 그리고 박금순 한국부인회장의 「우유제품과 소비자운동」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김과장은 '올해 농수산부에서는 우유변질방지및 우유위생향상을 위한 자금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우유의 변질방지는 목장에서부터 위생적인우유가 생산되도록 계몽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목장에는 반드시 집유냉각기를 설치 우유산패를 방지하고 유통과정중에서도 냉장고에서 보관판매가 되도록 각 유업체가 수시로 방문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돼지 계통출하 사업개시

- 양돈조합, 조합원 권익증진 위해 -

서울·경기지구 양돈협동조합(조합장 김천규)은 조합원 권익증진과 축산물 유통구조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돼지 계통출하사업에 들어갔다.

최근 설립되어 관계기관에 승인절차중에 있는 동조합은 계통출하에 따른 수수료를 연 2천두이상을 출하시키는 조합원의 경우 마리당 2백원, 그외에는 3백원씩으로 확정했다.

특히, 동조합은 도축장의 지육비율을 높이기 위해 3명의 조합임직원을 도축장에 배치, 도축과정을 감독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균지육율은 64%이상이라고 한관계자는 밝혔다.

동조합은 지금까지 서울지회가 맡아오던 계통출하업무를 이날자로 위임받아 집행하는 한편 양돈협회지부지회를 조합연락사무소로 활용키로 하는등 조합원 편의 제공에 주력키로 했다.

과학축산 마이코톡신 세미나 개최

- 닭·돼지 곰팡이 피해 방지 검토 -

과학축산(대표 이태일)은 최근 닭과 돼지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는 곰팡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항곰팡이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1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빙된 미국케민사의 국제담당 부사장 Mr. Hams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김창원박사의 통역을 통해 닭에 있어서 산란계의 부화율을 감소시키고, 비타민의 역할을 떨어뜨려 영양결핍을 일으키는 사료중의 곰팡이 피해는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사료원료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오염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지책이며, 계속적인 검사를 통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사료원료및 사료제품의 저장기간 단축, 필요시 항 곰팡이제제의 사용으로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Mr. Hams)



(이태일 사장)

항곰팡이제제는 포자, 균사체를 불활화시켜 성장을 억제, 포자생성을 방지시키거나, 독소분비를 저지시키는 등의 작용을 한다고 전하며 기 분비되어있는 독소에는 작용치 못하고 억제작용을 통해 더이상 발전을 중지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발표했다.

또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급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히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사료를 섞어서 먹이는 방법이 있으며 오염전에양계장, 사료회사, 농장인부, 도계장의 협조로 곰팡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사료의 곰팡이 피해에 대한 더욱자세한 내용을 다음호(6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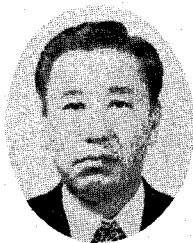
업계단신



○한국동물약품(주) (대표 김호석) : 학술 및 관측업무 강화를 위해 학술부 대리에 홍춘표(전 현대약품)씨를 특채

○대구 한미 병아리감별학원(원장 천성기) 개설 : 독일, 이락크, 스페인에서 4년간 해외감별사로 취업한 바 있는 본회감별분과 천성기씨는 경북일원의 초생추감별사 양성을 위해 지난 4월 6일 대구시에 한미 병아리감별 학원을 개설

주소 :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 1동189-25
전화 : 72-6705



(장동식 회장)



(천성기 원장)

○ 신촌사료 <주> : 대표이사 장동식씨를 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새로운 대표이사로 김용태전무이사를 선임하였다.

○인천시 수의사회 전화번호 변경 : 국번 변경으로 (423)3357로 변경.

○삼영물산 사무실이전 : 양질의 어분생산 메이커인 삼영물산(대표 남기수)은 사세확장에 따라 강원도 동해시의 동양물산을 인수하고 효율적인 판매공급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옥빌딩 402호)

전화 : 725-0102~3

○대정식품(대표 이헌정) : 사세확장에 따른 업무능률향상을 위해 사무실 이전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64-3

○대흥사료공업사(대표 강대준) : 계속적인 사세확장으로 국내 어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4월중 어분판매량 1천톤 돌파.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김길원) : 여술연전무이사와 장원용이사는 업무협약의 차 지난 4월 19일 도일하여 25일 귀국, 한편 3월말에 출국했던 김길원대표이사는 4월 5일 귀국한 바 있다.

○축협 3kg 포장육 시판개시 : 축협중앙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3kg단위의 대포장육을 생산, 판매했다. 1일 20두선의 물량을 시판하게 될 이 포장육은 종래에는 6백g 단위로만 시판됐었다.

○한일농원(대표 차두홍) : 사세확장에 따른 업무능률의 효율화와 직원 사기양상을 위해 기획실장겸 생산부장에 김춘수(전기기획실장)씨를, 영업부장에 함경섭차장, 총무부장에 김남옥차장, 생산부장에 정 청부화실장, 영업부 차장에 김종택기술보급과장, 생산부차장에 한창수병리실장과 김유근양돈과장을 각각 승진발령하고 영업부 판매과장에 박우탁대리, 판매과장대리에 하태권, 박기철, 송형용씨를 생산과장대리에 장용원씨, 판매과 주임에 김한규, 김익균씨를 각각 승진 발령했다.

○동심회(회장 이창열) : 양계업계 원로들의 모임인 동회는 지난 4월 24일오후 을지로 소재 호수그릴에서 월례회를 개최. 동회는 학계, 양계업계의 원로 친목회로 매 짝수달에 모임을 갖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 조기 도입 : 축협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인천항 갑문수리공사에 대비 7~8월중 도입 분 옥수수를 6월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기사정정

본지 4월호 68p. 탐방기사 이련농장도 있다는 기사중 이○○을 개미농장의 이 전세씨로 바로잡습니다.